

작품 개요

「밤 거리에서」는 작곡자가 47세 때인 1969년 10월 8일 박치원(朴致遠, 1927~1990)의 시에 곡을 붙인 작품이다. 나운영은 이 곡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했는지 수정중이라는 메모를 남겼고 생전에 출판되지 않았다.

작품 해설

이 곡의 가사는 박치원의 시로서 '순간마다 또 다시 죽어간 시간 여기 황막한 포도 위에 나와 밤은 가는 것이다'로 시작되는 시의 내용은 매우 어둡고 냉소적인 폐쇄성을 띄고 있어 일반적 가곡스타일로 즐겨 사용되는 감미로운 낭만성과는 거리가 멀다. 작곡자가 이러한 시어를 가사로 선택했던 이유는 아마도 그의 가곡에서 여지껏 시도하지 않았던 비조성적인 곡으로 적합하다는 느낌을 얻었던 듯 하다.

이 곡은 내림표 하나를 사용하여 조성을 바탕으로 한 곡 같기는 하나 전편적으로 펼쳐지는 선율은 조성과는 거리가 먼 형태를 취하고 있다. 리듬은 중지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8분음표·4분음표와 쉼표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고 그 중 대부분이 8분음표의 연속으로 되어 있음과 동시에 선율도 동음이 연속되는 부분이 많아 선율이 아니라 마치 독백하는 연주처럼 중얼거리는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 화성은 주로 감3화음과 증3화음 그리고 다양한 7화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화성의 기능적 취급은 찾아볼 수가 없다. 매우 실험적인 측면이 강하고 전통적인 가곡의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표현주의적 성격이 강한 곡이다.

- 이충자, 나운영의 가곡 작품의 유형별 분석, 음악과 민족 제9호, 민족음악연구소 중에서 -

No. 1

② 밤거리에서

1969. 10. 5

作曲

編曲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the first system, featuring a piano introduction with 'pp' and 'gliss' markings. The notation includes treble and bass clefs, a key signature of one flat, and a 6/8 time signature. The music is written on three staves.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the second system, including the lyrics '순간마다' and '모든 순간이'. The notation continues on three staves with treble and bass clefs, a key signature of one flat, and a 6/8 time signature.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the third system, including the lyrics '충만한 몸으로' and '이 나뉘'. The notation continues on three staves with treble and bass clefs, a key signature of one flat, and a 6/8 time signature.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the fourth system, including the lyrics '이제야' and '온-통거리고'. The notation continues on three staves with treble and bass clefs, a key signature of one flat, and a 6/8 time signature.

新世紀音樂部 (28) 6210